

기
월
후
드
리
트
스
트
회
동
아

주
관
리
과
함
께
하
드
리



찌는듯한 더위와 지루한 장마에도, 살을 에일 듯이
달려드는 북풍의 칼날에도 어김없이 일하는 사람들…

우리는 그들을 노동자라고 합니다.

어떤이는 노동을 없이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그
들 조차 노동이 인류역사와 문명의 발전에 원동력이
되었음을 부정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아지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심지어 문화에서 조차 도외시 되어온 노동의 주체들,

함께 살아가기에 늘 우리들 가슴 한구석에는 어전
한 마음이 있습니다.

아여 한국유일의 민간무용단체인 트러스트는 일하
는 사람들의 땀의 진실을 배우며, 우리를 또한 이 어
름 소금땀의 실천으로 마침내 무대에서 여러분과 당
당하게 만나려 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시작하는 이의 가능
성으로 여기며, 모쪼록 아낌없는 사랑과 격려 부탁
드립니다.

저희는 이후에도 기쁜마음 숨김없이, 일하는 사람
들과의 만남을 계획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견승을 기원합니다.

트러스트 현대무용단 대표 김 형 회

STAFF

연 출 : 김 형 회
무대미술 : 백철호, 손호성
무대감독 : 박 동 민
사 진 : 이 호 형
의 상 : 김 외 동

• 본 공연은  한국문화재진흥원의
일부지원으로 공연되어집니다.

작품1 카 르 토

Quarto

안무 / 김형희

출연 / 김윤규, 정지윤, 송윤경, 안영준

작품2 파 트 너

Partner

안무 / 임현미

출연 / 임현미, 김윤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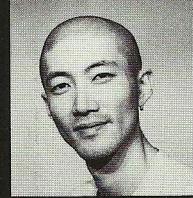
김 형 회 (Kim, Hyeong-Hee)

1962년 경남출생
1984년 부산여자대학교
무용학과 졸업
1986년 동대학원 졸업
1997년 현, 트러스트 현대무용단 대표



임 현 미 (Lim, Hyun-Mi)

1969년 부산출생
1992년 부산대학교
무용학과 졸업
1997년 현, 트러스트 훈련장



김 윤 규 (Kim, Yun-Gyu)

1970년 부산출생
1996년 부산대학교
무용학과 졸업
1997년 현, 트러스트 기획

작품3 새 벽

안무 / 임현미

임현미, 염지연, 김정민, 김지영, 송윤경

의 가장 가까운 곳에 혼자가서 울었다.
 간밤의 끝까지 쫓아간 곳
 그곳에서 너는 울었다.
 네 눈물은 떨림이다.
 네 눈물은 세벽을 여는 떨림
 네 눈물에 새벽은 온다.
 척박한 이 도시의 지난밤 양심들이
 비에 젖으며 새롭게 태어나고 있다.
 눈물이 비가되어 고단한 하루의 끝
 거쳐버린 양심들에 온몸적시며
 이 도시의 새벽을 짓는다.



작품4 쾌 감 Good Feeling

안무 / 김형희

출현 / 정지윤, 송윤경, 김지영, 안영준

</

포항 : 1997년 9월 26일(금요일) 오후 7시 30분 포항문화예술회관 대극장

울산 : 1997년 9월 27일(토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극당

거제 : 1997년 10월 4일(토요일) 오후 7시 30분 거제 대우중공업 극장

주관 : 트러스트 현대무용단 **후원** : 한국문예진흥원, 대우중공업 **기획** : TDC기획

공연문의-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 11-16 한주빌딩 트러스트 현대무용단 051) 622-0666